

##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분석

— 1970~1982년 대한간호학회지 및  
1978~1982년 Nursing Research 를 중심으로 —

\*홍근표, 김매자, 김명자, 이황련  
이경자, 박오장, 강현숙, 임난영  
김경인, 최남희, 이선옥, 박지원  
조동숙

### 목 차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능력진술
3. 연구의 목적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 II. 이론적 배경

1. 간호연구의 역사적 배경
2. 간호연구에 관한 선형연구

####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2. 자료수집방법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
2. 연구논문에 포함된 제변수간의 관계
3. 가설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4. 연구자의 특성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 V. 결론 및 제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가 전문적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

하기 위하여는 그 기본이 되는 과학적인 지식체를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sup>1)</sup> 따라서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이론 및 이에 바탕하는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선결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일찌기 Notter(1971)<sup>2)</sup>는 그의 논설에서 확고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한 실무중심연구(practice-oriented research)의 필요성과 간호의 효율성을 정확히 촉진할 수 있는 도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으며 Gortner(1974)<sup>3)</sup>는 간호의 체계에 있어서 인간을 중심으로하는 전인간호를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인민을 과학적 책임이 중요시 되어야만 간호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전강수혜자들의 양질의 간호 Service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간호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동시에 간호실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각적인 간호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경향이나 우수한 간호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학적 연구방법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연구라 함은 자연현상가운데에서 관계가 예상되는 가설적 명제들을 체계적, 통제적, 경험적,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sup>4)5)</sup>이 논 원래 인간의 지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간호연구 이수생 일등.

1) 김수지, 간호학이론, 간협신보, 1980년 11월 13일자 8면

2) L.E. Notter, Nursing Research, N.R. Vol. 20, No. 1, 1971, p.3.

3) S.R. Gortner, Scientific Accountability in Nursing, N.O., Vol. 22, 1974, pp.714~768.

4) 김수지, op. cit. 80년 11월 20일자 8면

5) F.N. Kerlinger,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Molt, Rinehart & Winston, Inc., 1973, p.11.

적 활동을 최대한으로 하여 과학적 진리를 탐구한다고  
도 말할 수 있으므로 무한한 추리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것은 박연한 상상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실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전개는 연역적 또는 귀납적 방  
법으로 되어<sup>6)</sup> 과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로는  
문제진술, 변수확인, 적절한 분석교찰, 이론적 틀, 변  
수와의 예측관계를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설설  
정,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표본추출과 자  
료 수집,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의 이용, 연구  
목적과 일치된 분석결과와 제언등으로 임무될 수 있  
다.<sup>7)8)9)10)</sup>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간호학술지인 “대한간호학회  
지”와 “Nursing Research”를 중심으로 과학적 연구로  
서 갖추어야 할 제요소별로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이론  
으로 더 특한 과학적 간호연구 방법의 제반과정을 실제  
로 경험해보고 또한 지금까지 기재된 간호연구논문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간호연구 방향을 제  
시하여 간호연구에 관심있는 간호학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 2. 문제진술

- 1) 국내외의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최근의 간호연구  
논문들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가?
- 2) 연구자, 문제진술, 가설, 연구설계에 따른 간호  
연구논문의 최근 연구방법 경향은 어떠한가?
- 3) 미래의 간호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하  
는가?

## 3.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1970~1982년간 “대한 간  
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99편과, 1978~1982년간의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259편을 중심으로  
과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제반과정을 분석, 비교하고  
최근 간호연구 논문의 과학적 연구방법의 경향을 알아  
보며, 과학적 연구방법의 제반과정을 실제로 경험해보  
기 위함이다.

6) F.N. Kerlinger, *ibid.*

7) D.F. Polit and B. Hunger: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N.Y., J.B. Lippincott co. 1978, pp.41~58.

8) D.J. Fox: *Fundamentals of Research in Nursing*, ed. 3, N.Y. Appleton-Century-Crofts, 1976, pp.284~301.

9) F. Abdellah and E. Levine: *Better Patient Care Through Nursing Research*, N.Y. The Macmillan Co., 2nd ed. 1971; pp.89~90.

10) 김광웅, 사회초자 연구 방법론, 서울, 학령사, 1981.

이미 한 일반적 목적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논문에 포함된 제반수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① 문제진술과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내용  
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 ② 가설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 ③ 연구설계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  
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 ④ 연구자의 특성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 3) 연구논문의 주요개념의 영역을 분류한다.

## 4. 용어의 정의

1) 과학적 연구방법: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를  
진술하고, 가설을 설정하며,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각변  
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처리하여 결론을 내리  
는 동시에 재연을 제시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 5. 연구의 제한점

1) 본연구는 과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방법론적  
내용을 check list로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연구자들의 주관적 견해로 수집 및 분류가 불가능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기재된 논문 중에 문제진술 및 통계분석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전개한 논문이 많아 분석하는  
데 부피가 있다.

3) 기재된 논문 중 연구자의 전공영역 및 직책이 분  
명히 밝혀지지 않는 논문이 있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부피가 있다.

4) “대한 간호학회지”的 자료는 13년간(1970~1982  
년)을 수집하였고 미국의 “Nursing Research”는 5년간  
(1978~1982년)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두군의  
직접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간호학은 복잡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노출되었거나 증명된 타당성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호실무는 간호이론 및 간호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sup>11)</sup> 즉 간호실무는 타당성 있는 과학적인 지식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지식체는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정립,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연구는 간호에 관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을 적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 1. 간호연구의 역사적 배경

간호연구의 시작은 Nightingale 이 Crimea 전쟁 시 간호원의 활동상을 관찰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간호연구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구동향을 보면 1900년대 초반기에는 간호학생의 양성이 교육보다는 업무 중심이었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주로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Goidmark 의 서술형식의 보고는 간호교육자, 행정자 및 지역사회간호원들의 교육적 배경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간호고등 교육기관의 설립을 강력히 제언하였지만, 1923년 Yale 대학에 대학원과정이 설립되게 되었다.<sup>13)</sup> 이와 폐를 같이 하여 Stewart 는 교육대학내에 간호학 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이를 기회로 연구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sup>14)</sup> 제 2차 세계대전후에 간호인력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간호원의 수급, 병원환경 및 간호원상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이를 연구중에서 특히 Brown 의 보고는 간호교육이 적어도 대학과정수준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연구는 병원에서 행해지던 간호교육을 대학으로 옮기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에는 간호원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연구의 발전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으며, 최초의 간호연구는 미국결핵협회의 후원을 받아 시행된 병원내의 결핵환자 간호에 관한 survey 이었다.<sup>15)</sup>

1952년 간호학술지인 Nursing Research 가 발간됨에 따라 간호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축진되어 1960년대에는 개념구조, 개념적 모델 및 간호수행의 이론적 근거 등 의 용어들이 간호분야에 실현되게 되었다. 이때 미국정부에서는 간호학자들이 인접학문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어 이를에 의해 간호연구는 본격화되었을 뿐 아니라 간호학 박사과정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간호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간호증세의 실제적인 효과를 다른 임상적인 실증연구가 시도되었다.<sup>16)</sup>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간호연구의 발전계기는 1955년 백학과정이 창설됨과 동시에 간호학이 전문직업으로서 다른 분야의 학문 또는 다른 전문 직업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면서부터였다. 1961년 대한간호학회가 설립되었고 연구발표를 시초로하여<sup>17)</sup> 연구가 시작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연구의 대부분은 간호교육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국소수준이 실무에 중자하는 간호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는 소수이기는 하나 석사과정이 수치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1970년 대한간호협회 제38회 대의원총회에서 대한간호학회의 벌칙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제 1회 학술발표회를 1970년 10월 29일에 가졌으며, 같은해 12월에 대한간호학회지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다.<sup>18)</sup> 이어 1978년 열세대 학구대학원 박사과정의 개설은 과학적인 간호연구증진의 활력소가 되었다.

### 2. 간호연구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의 각종학술지의 발간과 더불어 과학적 '간호'

11) B.J. Stevens, *Nursing Theory*, Little Brown & Co., 1979, p.183.

12) 김수자, *op. cit.* 80년 11월 13일자.

13) L.W. Simmons, V. Henderson, *Nursing Research: Survey & Assessment*,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64., 2nd Ed. p.8.

14) V. Henderson, "We've 'come a long way,' but what of the direction?" *Nursing Research*, (May/June) 1977, p.163.

15) D.F. Polit, B.P. Hungler, *op. cit.*, p.8.

16) Elizabeth M. See, "The ANA and Research in Nursing," *Nursing Research*, (May/June) Vol. 26, No. 3, 1977., p.166.

17) D.F. Polit & B.P. Hungler, *op. cit.*, pp.8~14.

18) 전산초, 전문체육과 간호연구, 대한간호, 제 9권 3호\* 1970, pp.13~21.

19) 이귀향, 장간사, 간호학회지 장간호, 1970, 12월

·연구 논문의 계제가 활발해졌다.

미국간호연구지인 "Nursing Research"의 발간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52~1977년까지 25년간의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의 각 분야별 평가 및 분석이 되었는데 이는 Ellis의 내외과 간호영역의 연구, Barnard와 Neal의 드아간호영역의 연구, Sills의 정신과 간호영역의 연구, Highriter의 지역사회 건강간호 영역의 연구 및 Gunter와 Miller의 Gerontology 간호영역의 연구로 이루어졌다.<sup>20)</sup> 특히 Highriter<sup>21)</sup>는 "지역사회 건강간호영역의 연구"를 평가 및 분석하는 논제에서 미래의 간호연구는

1) 프로그램평가에 있어서의 타당한 질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과 이전에 평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척도를 발견하는 일,

2) 무작위 혹은 조직적표본추출법(random or systematic sampling technique)을 이용한 실험체계의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통제변수의 통제를 해야하는 일,

3) "Block"이 process-outcome이라고 정했던 간호활동을 잘 기술함으로서 간호과정의 양상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관련지우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일.

4) 가능한 한 더 큰 표본과 적절한 반복연구, 증진된 표본추출법의 이용을 통한 결과의 일반화를 증진시키는 일.

5) 지역사회 건강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 수를 증가시키는 일.

6) 탐색적연구를 증진시키는 일.

7) 실무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동부한 연구결과를 만들 수 있는 논문과 논문의 평가를 증진시키는 일 등이 필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72~1976년까지의 5년간 "대한간호·대한간호학회지" 및 "중앙의학" 3개 전문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276편과 미국의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300편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sup>22)</sup>

그중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고(82.0%, 79.4%) 다음으로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역사적 연구(11.6%), "Nursing Research"에서는 실험연구(11.3%)가 많았다.

또한 강파이<sup>23)</sup>의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실제에서는 1970년 1월 ~1979년 12월 까지 10년간의 "대

한간호"와 "대한간호학회지"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일상분야의 연구활동이 부진하였고 실제적 연구가 많았으며 간호행위연구가 많았고, 연구 접근방법에는 조사연구가, 자료수집도구로는 질문지법이, 그리고 자료분석방법에는 백분율이 가장 많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1970~1982년까지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199편과 1978~1982년까지 미국의 "Nursing Research(N.R.)"에 게재된 연구논문 259편 총 458편 전수를 자료로 하였다.

#### 2. 자료수집방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에서 간호연구방법을 수강하는 학생 13명이 1983년 3월~5월에 걸쳐 다음과 같은 Check list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연구자 : 총 연구자의 수, 캐일 연구자의 학위, 직책, 전공영역.
- 2) 논문제목과 이에 포함된 주요개념
- 3) 접지령 : 년도, 월, 페이지
- 4) 문제진술 : 유무, 유형, 수(No.)
- 5) 연구설계 : 유형
- 6) 가설 : 유무, 유형, 수(No.)
- 7) 사용된 변수측정도구 : 유형, 수(No.)
- 8) 사용된 통계분석방법 : 유형, 수(No.)
- 9) 결과 : 가설지지여부
- 10) 저연 : 유무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들이 작성한 Master Code에 의해 Coding Sheet, 부호화하여 각 항목 및 내용에 따라 Frequency,  $\chi^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 Analysis 등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한 후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20) The Report of "25th Anniversary of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1977, pp.177~221.

21) Marion E. Highriter, "The Status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May/June) Vol. 26, No. 3, 1977, p.191.

22) 조경자, "한미 간의 간호연구 경향에 관한 비교조사연구경", 경희간호연구지, 1978, 62~75면.

23) 강윤희, 이숙자,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제19권 제 3 호, 1980, 54~59면.

## IV. 연구결과 및 고찰

연구특성에 따라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 연구논문의 세변수간의 관계로서 문제진술과 과학적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가설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연구설계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방법론에 입각한 내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논문에 있어, 주요개념의 영역분류의 순으로 연구결과를 서술하였다.

### 1.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

#### 1) 연구자의 특성

연구자의 특성은 연구자의 주, 학위, 직책 및 전공

〈표 1〉 책임연구자의 학위, 직책 및 전공영역별  
분포

인수(%)

	대한간호 학회지	N.R.
학위		
학사	2( 1.0)	4( 1.5)
석사	137( 68.8)	98( 37.8)
박사	10( 5.1)	157( 60.6)
기타	50( 25.1)	0
계	199(100.0)	259(100.0)
직책		
간호원	35( 17.6)	47( 18.1)
교수	111( 55.8)	165( 63.7)
연구직	0	23( 8.9)
비간호 계	0	22( 8.5)
기타	53( 26.6)	2( 0.8)
계	199(100.0)	259(100.0)
전공영역		
성인간호	49( 24.6)	63( 24.5)
노아간호	16( 8.1)	36( 13.9)
정신간호	25( 12.6)	22( 8.5)
지역사회간호	17( 8.5)	30( 11.6)
행정	7( 3.5)	13( 5.0)
기타	85( 42.7)	95( 36.8)
계	199(100.0)	259(100.0)

24) 강윤희, 이숙자, 장개서, 55면.

영역별로 “대한간호 학회지”와 “Nursing Research”的 두간호전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1970년부터 1982년까지 “대한간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는 총 238명 (전공연구자수의 평균치 :  $1.196 \pm 0.4993$ ) 이었으며 1978년부터 1982년까지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수는 총 438명 (전당 연구자수의 평균치 :  $1.8417 \pm 1.1250$ )이었다.

책임연구자의 학위, 직책 및 전공영역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책임연구자의 학위는 “대한간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 중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137명 (68.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즉 학위의 소유를 밝히지 않은 연구자의 수가 50명 (25.1%),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10명 (5.1%)이었다. 이에 비해 “N.R.”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 가운데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157명 (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석사학위 소지자 98명 (37.8%)의 순이었다. “N.R.”에 비해 “대한간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의 고 반수이상 (68.8%)이 석사학위의 소지자인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간호학박사과정개설 (1978년)이 늦어진데 원인이 있다고 사려된다.

“대한간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의 직책을 보면 교수수가 111명 (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즉 직책을 밝히지 않는 연구자의 수는 53명 (26.6%) 그리고 간호원 35명 (17.6%)의 순이었고, “N.R.”의 경우에도 역시 교수가 165명 (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간호원 47명 (18.1%), 연구직 23명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sup>24)</sup>의 연구에서도 일상분야의 연구가 부진함을 지적한바와 동일한다. 대한간호학회지나 “N.R.”에서 교수들의 논문제작가 많은 점은 교수직의 기능중 하나가 연구이고 또한 연구실적의 필요성이 때문이다. 간호는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기초가 되는 지식의 확장을 위하여 실무에서의 간호원의 연구참여가 활발해야 하겠다. “대한간호학회지”에 있어 연구자의 학위 및 직책이 밝혀지지 않은 수가 많은 것은 “대한간호학회지”的 게재규정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연구자의 전공영역을 보면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성인간호가 49편 (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은 정신간호 25편(12.6%) 지역사회 간호 17편(8.5%)의 순이었고, “N.R.”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의 전공 영역 역시 성인간호가 63편(2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모아간호 36편(13.9%), 지역사회간호 30편(11.6%)의 순이었다. 연구자의 전공영역을 분류함에 있어서 기타가 “대한간호학회지”에서 42.7%, “N.R.”에서 36.8%가 되는 것은 기초과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간호 영역을 이상의 다섯분야로 한정한 것에 뿐만 아니라 의미한다.

## 2)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논문의 내용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으로 문제진술, 연구설계, 가설, 자료수집도구, 통계분석방법 및 제언을 비교 분석하였다.

### (1) 문제진술 유무, 유형 및 수

**〈표 2〉 문제진술 유무 및 유형**

		인수(%)
대한간호 학회지		N.R.
문제진술 있다	36( 18.4)	108( 41.7)
유 무 없다	163( 81.6)	151( 58.3)
계	199(100.0)	159(100.0)
문제진술 의문형	10( 27.8)	74( 68.5)
유 형 서술형	26( 72.2)	34( 31.5)
계	36(100.0)	108(100.0)

〈표 2〉와 같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문제진술이 있는 것은 소수인 36편(18.4%)이었으며, “N.R.”에 게재된 논문 중 문제진술이 있는 것은 소수인 108편(41.7%)이었다. 문제진술을 한 경우 문제진술의 유형은 “대한간호학회지”에 있어서는 의문형이 10편(27.8%)이었고, 서술형은 26편(72.2%)이었다. 이에 비해 “N.R.”에 있어서는 의문형이 74편(68.5%), 서술형이 34편(37.5%)이었다.

“N.R.”에 비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문제진술의 형태를 대부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간호학회지”에서 문제진술을 기술할 경우 그 유형이 “N.R.”에 비해 서술형을 취한 논문이 많은 것은 연구한 문제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적용이 미흡 할 뿐만 아니라, 판례적인 연구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사비된다.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36편의 문제진술의 평균은  $2.459 \pm 1.574$ 이고 “N.R.” 108편의 문제진술의 평균은  $2.2670 \pm 1.5104$ 로 비슷하였다.

### (2) 연구설계의 유형

**〈표 3〉 연구설계의 유형**

인수(%)

	대한간호학회지	N.R.
실험연구	2( 1.0)	22( 8.5) 26%
유사실험연구	19( 9.6)	46( 17.4)
사후연구	56( 28.1)	86( 33.3)
조사연구	111( 55.8)	85( 32.9)
역사적연구	2( 1.0)	8( 3.1)
사례연구	3( 1.5)	1( 0.4)
기타	6( 3.0)	11( 4.3)
계	199(100.0)	259(100.0)

〈표 3〉에서와 같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설계는 조사연구가 111편(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사후연구 56편(28.1%), 유사실험연구 19편(9.6%)의 순이었다. “N.R.”에 게재된 논문에는 사후연구가 86편(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연구가 85편(32.9%) 유사실험연구는 46편(17.4%)의 순이었다. 두 간호연구장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N.R.”에 게재된 논문에는 실험연구와 유사실험연구가 26.3%인데 비해 “대한간호학회지”는 10.8%로 나타났으나, 조(1977)<sup>25)</sup>가 ’72~’76년까지의 간호연구논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한 조사연구 82.0%, 실험연구 3.9%에 비하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이 실험연구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sup>26)</sup>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 (3) 가설의 유무, 유형 및 수

**〈표 4〉 가설의 유무 및 유형**

		대한간호 학회지	N.R.
가설유무 있다	53( 26.6)	130( 50.2)	
없다	146( 73.4)	129( 49.8)	
계	199(100.0)	259(100.0)	
가설유형 대안가설	37( 69.8)	95( 73.1)	
영가설	16( 30.2)	35( 26.9)	
계	53(100.0)	130(100.0)	

25) 조경자, “한국의 간호연구 경향에 대한 통계적 고찰”, 경희간호연구지 창간호 1977, 53면

26) 강윤희, 이숙자, 적계서, 57년.

<표 4>에서와 같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가설이 있는 논문은 53편(26.6%)인데 비해 “N.R.”의 논문중에 가설이 있는 논문은 130편(50.2%)이었다.

가설이 있는 경우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제시된 가설의 유형은 예안가설이 37편(69.8%) 영가설이 16편(30.2%)이었으며 “N.R.”의 논문에 제시된 예안가설은 95편(73.1%) 영가설이 35편(26.9%)이었다.

“N.R.”에 비하여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중에서 개설을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73.4%로 많은 것은 가설제시를 생략하고 연구주제속에 가설을 포함시킨 결과다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연구설계가 조사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설을 제시한 논문의 경우 “대한간호학회지”에서는 69.8%, “N.R.”에서는 73.1%가 예안가설의 유형을 취하고 있었다.

영가설은 단지 통계적 특적으로 사용되고 잘추론된 연역이나 강한 개념적 지지를 반영할수 없을에 비하여 예안가설은 연구자의 지식이나 경험,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반영 할수 있으며, 현수간의 예상될 관계를 제시할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중 가설이 제시된 53편의 가설의 평균수는  $4.3396 \pm 2.2442$ 개이고 “N.R.”의 130편의 가설의 수는  $3.2769 \pm 2.0155$ 개로 “대한간호학회지”가 평균 1개의 가설이 더 많음을 볼 수 있었다.

#### (4) 자료수집도구의 유형 및 수

<표 5> 자료수집도구의 유형

	대한간호학회지	N.R.	인수(%)
객관적 척도	23( 10.6)	30( 10.0)	
관찰법	24( 11.6)	30( 10.0)	
생리적 측정법	12( 5.5)	27( 9.1)	
설문지법	133( 61.0)	164( 54.7)	
면접법	12( 5.5)	28( 9.2)	
기타	14( 6.4)	21( 7.0)	
계	218(100.0)	300(10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법이 133편(6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찰법 24편(11.0%), 객관적 측정법 23편(10.6%)의 순이었고, “N.R.”에서도 설문지법이 164편(54.7%)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 1978<sup>29)</sup>와 정<sup>30)</sup>의 한·미 모두 설문지법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1976년 이후에도 자료수집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의 측정방법만으로는 복잡하고 추상적 임상적 개념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간호연구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하되 반드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용된 자료수집 도구의 총수는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218개(평균수 :  $1.2124 \pm 0.5787$ )인 반면 “N.R.”의 경우 300개(평균수  $1.9156 \pm 1.2493$ )로서 “N.R.”에서 더 많은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 (5)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의 종류 및 수

<표 6> 통계분석 방법의 종류

통계분석방법	대한간호학회지 (199편)	N.R.(259편)	인수(%)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169	84.9	172
Pearson Correlation	20	10.1	93
Item Analysis	0	0	26
Test-Retest	1	0.5	36
Z-Score	0	0	5
계	190	56.4	332
			47.7
Inferential Statistics			
Chi-Square	57	28.6	66
t-Test	47	23.6	84
ANOVA	29	14.6	86
계	133	39.5	236
			33.9
Advanced Statistics			
Regression	2	1.0	7
Multiple Regression	3	1.5	23
			8.9

27) D.R. Krathwohl, How to Prepare a Research Proposal, 2nd Ed., Syracuse: Syracuse Univ. Bookstore, 1977 in D.F. Polit, Nursing Research, 1978, p.631.

28) D.F. Polit, B.F. Hungler, op. cit., p.631.

29) 조경자, 전계서 64편

30) 강윤숙, 이숙자 전계서 58편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4	2.0	6	2.3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1	0.5	3	1.2
Factor Analysis	0	0	26	10.0
ANCOVA	0	0	6	2.3
계	10	3.0	71	10.2
<b>Non-Parametrics Statistics*</b>				
Mann-Whitney U-Test	0	0	8	3.1
Cramer's Phi Coefficient	0	0	1	0.4
Kuder Richard	0	0	3	1.2
McNemar Test	0	0	1	0.4
Kendall Test	0	0	5	1.9
Wilcoxon Test	0	0	4	1.5
Newman Keuls Test	0	0	2	0.7
Hotelling's t-square	0	0	1	0.4
Kruskal-Wallis	0	0	2	0.7
Sheff's post hoc	2	1.0	8	3.1
Cochran's Q-Test	1	0.5	2	0.7
Fisher's exact test	0	0	3	1.2
기타*	1	0.5	17	6.6
계	4	1.1	57	8.2
총계	337	100.0	696	100.0

\* 기타는 Non-parametrics의 유형들이 브로 이에 포함됨.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간호학회지” 및 “N.R.”에서 사용된 통계분석 종류는 총 26개 이상이었으며 이를 편의상 서술적 통계, 추론적 통계, 고급 통계 및 Non-Parametrics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서술적 통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190편 : 56.4%) 다음으로 추론적 통계를 133편(39.5%)에서 사용하였다. “N.R.”의 경우 위의 4가지 유형 중 서술적 통계를 332편(47.7%)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추론적 통계를 239편(34.3%)에서 사용하였다.

“대한간호학회지”는 “N.R.”에 비해 고급통계와 Non-Parametrics의 사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적절한 고등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좋은 연구결과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1편당 평균 1.69개의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한데 비하여 “N.R.”의 경우 평균 2.69개의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제언의 유무

<표 7> 제언의 유무

인수(%)

대한간호학회지	N.R.
있다	64( 32.5)
없다	135( 67.5)
계	199(100.0)
	259(100.0)

<표 7>과 같이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중 64편(32.5%)만이 제언이 있었으며 “N.R.”에서는 181편(70.2%)의 연구논문이 제언을 하였다. 연구발전을 위해서나, 연구방법에 관심있는 간호학자를 위하여서는 각연구의 결과를 기판으로 한 제언이 마땅히 제시되어야 하리라 본다.

#### 2. 연구논문에 포함된 제변수간의 관계

##### 1). 문제진술과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문제 진술과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진술의 수와, 가설의 수, 문제진술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를 보았다.

###### (1) 문제진술의 수와 가설의 수와의 관계

문제진술의 수와 가설의 수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으로 검증한 결과 “N.R.”에서 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 .2837$ ,  $p= .027$ )

###### (2) 문제진술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

문제진술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문제진술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문제진술이 의문형인 경우는 대안가설을 서술형인 경우는 영가설을 많이 사용했는데 비하여 “N.R.”는 문제진술의 유형에 관계없이 대안가설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변수에 대한 철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뿐만한 방향제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3. 가설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가설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에서 가설의 유무와 자료수집도구의 유형 및 수, 분석

〈표 8〉

문제진술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

인수 (%)

	대한간호학회지			Nursing Research		
	의문형	서술형	제	의문형	서술형	제
대안가설 영가설 계	8(21.6)	9(24.4)	17(45.9)	21(44.7)	15(32.0)	36(76.6)
	3(8.7)	17(45.9)	20(54.1)	8(17.0)	3(6.3)	11(23.4)
	11(29.7)	26(70.3)	37(100.0)	29(61.7)	18(38.3)	47(100.0)
	$\chi^2=3.11641$			$\chi^2=.25517$		
	d.f.=1	p=.0775		d.f.=1	p=.6135	

의 유형, 분석방법의 수, 제언유무와의 관계, 가설의 수와 자료수집 도구의 수, 가설 유형과 분석의 수 및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가설의 유무와 자료수집 도구의 유형과의 관계  
가설의 유무와 각 측정도구의 사용여부와의 관계를  $\chi^2$ -test로 검정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N.

R.”의 경우는 객관적 척도 ( $\chi^2=4.30763$  d.f.=1 p=.0379)와 설문지법 ( $\chi^2=5.73795$  d.f.=1 p=.016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참조〉

즉 “N.R.”의 경우 가설이 있는 120편의 논문중 110편이 객관적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반면 120편의 논문중 91편이 설문지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설의 유무와 자료수집도구의 유형과의 관계

인수 (%)

	Nursing Research			$\chi^2$ 값	d.f.	p value
	가설유	가설무	제			
객관적 척도 유 부 계	10(4.4)	20(8.8)	30(13.2)	4.30763	1	.0379
	110(48.2)	88(38.6)	198(86.8)			
	120(52.6)	108(47.4)	228(100.0)			
설문지법 유 부 계	91(39.9)	65(28.5)	156(68.4)	5.73795	1	.0166
	29(12.7)	43(18.9)	72(31.6)			
	120(52.6)	108(47.4)	228(100.0)			

(2) 가설의 유무와 자료수집도구의 수와의 관계  
가설의 유무와 논문에 사용된 자료수집도구의 수와의 관계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N.R.”의 경우 유의한 차가 없게 나타났으나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가설이 있는 논문의 평균치가 1.3846이고 가설이 없는 논

문의 평균치는 1.1511으로 사용한 자료수집도구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2.51$ , d.f.=189, p=.013) 즉 가설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사용된 자료수집 도구의 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가설의 유무와 자료수집도구의 수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N.R.		
	논문수	평균	표준오차	논문수	평균	표준오차
가설 유 부	52	1.3846	.096	120	2.0750	.119
	139	1.1511	.044	105	1.7714	.119
	$t$ 값 = 2.51			$t$ 값 = 1.80		
	d.f. = 189			d.f. = 223		
	p value = .013			p value = .074		

(3) 가설의 유무와 통계분석 종류와의 관계  
가설의 유무와 각 통계 분석 방법의 사용유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의 유무와 각 통계분석 방법의 사용유무와의 관계를  $\chi^2$ -test로 검증한 결과 “대한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chi^2$ -test 와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 ( $\chi^2=7.06057$ ,  $p=.0079$ ), t-test 와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 ( $\chi^2=15.66150$ ,  $p=.0001$ ), ANOVA와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 ( $\chi^2=7.11075$ ,  $p=.0077$ )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R.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t-test 와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 ( $\chi^2=21.77203$ ,  $p=.0000$ ), ANOVA와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 ( $\chi^2=8.33649$ ,  $p=.0039$ )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 간호 학회지”나 “N.R.”가 t-test 와 ANOVA, 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가설의 유무와 통계분석종류와의 관계

인수 (%)

		대 한 간 호 학 회 지			$\chi^2$ 값	d.f.	p-value
		가설유	가설무	계			
$\chi^2$ -test	유	23(11.7)	3(17.3)	57( 28.9)	7.06057	1	.0079
	무	29(14.7)	111(56.3)	140( 71.1)			
	계	52(26.4)	145(73.6)	197(100.0)			
t-test	유	23(11.7)	23(11.7)	46( 23.4)	15.66150	1	.0001
	무	29(14.7)	122(61.9)	151( 76.6)			
	계	52(26.4)	145(73.6)	197(100.0)			
ANOVA	유	14( 7.1)	15( 7.6)	29( 14.7)	7.11075	1	.0077
	무	38(19.3)	130(66.0)	168( 85.3)			
	계	52(26.4)	145(73.6)	197(100.0)			

인수 (%)

		Nursing Research			$\chi^2$ 값	d.f.	p-value
		가설유	가설무	계			
t-test	유	60(24.3)	21( 8.5)	81( 32.8)	21.77203	1	.0000
	무	69(27.9)	97(39.3)	166( 67.2)			
	계	129(52.2)	118(47.8)	247(100.0)			
ANOVA	유	54(21.9)	28(11.3)	82( 33.2)	8.33649	1	.0039
	무	75(30.4)	90(36.4)	165( 66.8)			
	계	129(52.2)	118(47.8)	247(100.0)			

(4) 가설의 유무와 분석방법의 수와의 관계

가설의 유무와 논문에 이용된 분석 방법수와의 관계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 “N.R.”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3.88$ ,  $p=.000$ )

즉 가설이 있는 논문의 경우 가설이 없는 논문에 비해 더 많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5) 가설의 유무와 제언의 유무와의 관계

가설의 유무와 제언의 유무와의 관계를  $\chi^2$ -test로 검증한 결과 “N.R.”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가설의 유무와 제언의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13.40133$ ,  $d.f.=1$ ,  $p=.0003$ ) 즉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가설이 없는 145편의 논문중 109편에서 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표 12〉

가설의 유무와 통계분석수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N.R.		
	논문수	평균	표준오차	논문수	평균	표준오차
가설유	52	2.1154	.112	126	3.0000	.131
가설무	139	1.6115	.067	116	2.2845	.129
	t 값 = 3.88			t 값 = 3.88		
	d.f. = 189			d.f. = 240		
	p value = .0000			p value = .0000		

〈표 13〉

가설의 유무와 제언의 유무와의 관계

인수 (%)

	대한간호학회지			N.R.		
	가설유	가설무	계	가설유	가설무	계
제언유	28(14.2)	36(18.3)	64(32.5)	93(37.7)	81(32.8)	174(70.4)
부제	24(12.2)	109(55.3)	133(67.5)	36(14.6)	37(15.0)	73(29.6)
제	52(26.4)	145(73.6)	197(100.0)	129(52.2)	118(47.8)	247(100.0)
	$\chi^2=13.40133$ , d.f.=1			$\chi^2=.20593$ , d.f.=1		
	d=.0003**			p=.6500		

## (6) 가설의 수와 자료수집도구의 수와의 관계

가설의 수와 측정도구 수와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로 검증한 결과 “N.R.”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832, p=.022)

## (7) 가설의 수와 분석의 수와의 관계

가설의 수와 분석의 수와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로 검증한 결과 “N.R.”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와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연구설계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에서는 연구설계의 유형과 자료수집 도구의 수, 통계분석의 수, 제언의 유무, 가설의 유무 및 유형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설계유형은 평의상 Experimental design에서는 True-experimental design과 Quasi-Experimental design을 Non-Experimental design에서는 Ex-post fact, Survey, Historical Case study, 기타 연구 design으로 분류하였다.

## (1) 연구설계의 유형과 자료수집도구의 수와의 관계

연구설계의 유형과 자료수집도구수와의 관계를 변량 분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 ( $F=2.370$ ,  $p=.041$ ) “N.R.” ( $F=2.118$ ,  $p=.052$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설계의 유형과 통계분석의 수와의 관계

연구설계의 유형과 통계 분석의 수와의 관계를 변량 분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N.R.”에 게재된 논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14〉

연구설계의 유형과 자료수집 도구의 수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N.R.				
	SS	d.f.	MS	F	P value	SS	d.f.	MS	F	P value
Between Group	3.831	5	0.766			19.365	6	3.228		
Within Group	60.459	187	0.323	2.370	0.041	348.940	229	1.524	2.118	1.052
Total	64.290	192	0.335			368.305	235	1.567		

〈표 15〉

연구설계의 유형과 통계분석의 수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N.R.				
	SS	d.f.	MS	F	P value	SS	d.f.	MS	F	P value
Between Group	6.746	5	1.349			55.787	6	9.298		
Within Group	123.813	187	.662	2.038	.075	492.166	246	2.001	4.674	.001
Total	130.560	192	.680			547.953	252	2.174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4.647$ ,  $p=.001$ )

(3) 연구설계의 유형과 제언의 유무와의 관계

연구설계의 유형과 제언의 유무와의 관계를  $\chi^2$ -test로 검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와 “N.R.”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설계의 유형과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

연구 설계의 유형과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를  $\chi^2$ -test

로 검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 ( $\chi^2=7.9576$ ,  $p<0.01$ )와 “N.R.” ( $\chi^2=17.7221$ ,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설계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

연구설계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를  $\chi^2$ -test로 검증한 결과 양간호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연구설계의 유형과 제언의 유무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Nursing Research		
	제언유	제언무	계	유	무	계
Experimental design	9( 4.5)	12( 6.1)	21( 10.6)	52(20.2)	15( 5.8)	67( 26.0)
Non-experimental design	55(28.0)	121(61.4)	176( 89.4)	129(50.0)	62(24.0)	191( 74.0)
Total	64(32.5)	133(67.5)	197(100.0)	181(70.2)	77(29.8)	258(100.0)
	$\chi^2=0.1111$			$\chi^2=2.4035$		
	d.f.=1	$p>0.05$		d.f.=1	$p>0.05$	

〈표 17〉

연구설계의 유형과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

(인수 (%))

	대한간호학회지			Nursing Research		
	가설유	가설무	계	유	무	계
Experimental design	11( 5.7)	10( 5.1)	21( 10.8)	49(19.8)	16( 6.5)	65( 26.3)
Non-experimental design	41(21.0)	133(68.2)	174( 89.2)	80(32.4)	102(41.3)	182( 73.7)
Total	52(26.7)	143(73.3)	195(100.0)	129(52.2)	118(47.8)	247(100.0)
	$\chi^2=7.9576$			$\chi^2=17.7221$		
	d.f.=1	$p<0.01$		d.f.=1	$p<0.01$	

〈표 18〉

연구설계의 유형과 가설의 유형과의 관계

(인수 (%))

	대한간호학회지			Nursing Research		
	대안가설	영가설	계	대안가설	영가설	계
Experimental design	5( 9.4)	7(13.2)	12( 22.6)	41(31.5)	8( 6.2)	49( 37.7)
Non-experimental design	32(60.4)	9(17.0)	41( 77.4)	54(41.5)	27(20.8)	81( 62.3)
Total	37(69.8)	16(30.2)	53(100.0)	95(73.0)	35(27.0)	130(100.0)
	$\chi^2=5.8303$			$\chi^2=4.4882$		
	d.f.=1, $p<0.05$			d.f.=1, $p<0.05$		

#### 4. 연구자의 특성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내용분석으로 연구자의 학위에 따른 문제진술, 연구설계의 유형, 가설의 유무 및 유형, 연구자의 직책에 따른 문제진술 및 가설유무 연구자의 전공영역에 따른 연구 설계의 유형과의 관계를 “대한간호학회지”와 “N.R.”를 비교하여 보았다.

##### (1) 연구자의 학위와 문제진술의 유무와의 관계

연구자의 학위와 문제진술의 유무와의 관계를  $\chi^2$ -test로 검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나 “N.R.”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자의 학위와 연구설계의 유형과의 관계

연구자의 학위와 연구설계의 유형과의 관계를 Chi-square로 검증한 결과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한 관측지의 실수가 5미만이므로 Yates correction으로 검증하였으나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Yates' correction = 1.1344,  $p > 0.05$ ) 반면에 “N.R.”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 $\chi^2 = 6.7085$ ,  $p < 0.01$ )

〈표 19〉

연구자의 학위와 연구설계의 유형과의 관계

인수 (%)

	대한간호학회지			N.R.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Experimental design	17(11.7)	3( 2.1)	20( 13.8)	34(13.4)	32(12.6)	66( 26.0)
Non-experimental design	118(81.4)	7( 4.8)	125( 86.2)	63(24.8)	125(49.2)	188( 74.0)
계	135(93.1)	10( 6.9)	145(100.0)	97(38.2)	157(61.8)	254(100.0)
	Yates' correction = 1.1344			$\chi^2 = 6.7085$		
	d.f.=1 $p > 0.05$			d.f.=1 $p < 0.01$		

##### (3) 연구자의 학위와 가설의 유무 및 유형과의 관계

연구자의 학위와 가설의 유무와의 관계를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Fisher의 치점확률법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p=0.5958$ ) “N.R.”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chi^2 = 6.3877$ ,  $p < 0.05$ ) 학위에 따라 사용된 가설의 유형은 “대한간호학회지”에 있어서 석사의 경우 대안가설을 많이 선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한 관측치의 실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empty cell) 검증할 수 없었고 “N.R.”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4) 연구자의 전공영역과 연구설계 유형과의 관계

연구자의 전공영역 즉 성인, 산소아, 정신, 토전, 행정 기타와 연구설계의 유형 즉 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 사후연구, 조사연구, 역사적연구, 사례연구, 기타

〈표 20〉

연구자의 학위와 가설의 유무 및 유형과의 관계

인수 (%)

	대한간호학회지			Nursing Research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가설 유무						
유	40(27.3)	2( 1.4)	42( 28.7)	50(20.5)	79(32.4)	129( 52.9)
무	96(65.8)	8( 5.5)	104( 71.3)	44(18.0)	71(29.1)	115( 47.1)
계	136(93.1)	10( 6.9)	146(100.0)	94(38.5)	150(61.5)	244(100.0)
	Fisher's Exact Method에 의한 $p = 0.5958$			$\chi^2 = 6.3877$ d.f.=1 $p < 0.05$		
가설의 유형						
대안가설	28(65.1)	—	28( 65.1)	38(29.2)	57(43.9)	95( 73.1)
영·가설	13(30.2)	2( 4.7)	15( 34.9)	12( 9.2)	23(17.7)	35( 26.9)
계	41(95.3)	2( 4.7)	43(100.0)	50(38.4)	80(61.6)	130(100.0)
	$\chi^2 = 0.1527$ d.f.=1 $p = 0.6525$					

〈표 21〉

연구논문에 있어서 주요개념의 영역분석

Factor	개념	요인명	Eigen-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mulative Percentage
1	Health Belief Personality Profile Self Concept	인자	2.37280	3.5	3.5
2	Empathy, Trust	신뢰	2.00502	2.9	6.4
3	Anxiety, Hostility, Social Disengagement	심리장태	1.93142	2.8	9.3
4	Musle Tension Pain	감각	1.71279	2.5	11.8
5	Adaptation Social Support	적응	1.50986	2.2	14.0
6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행정	1.30377	1.9	15.9
7	Ego	자아	1.29532	1.9	17.8
8	Nurse's Role	역할	1.22818	1.8	19.6
9	Compliance, Coping, Intervention, Sex-Role	이행	1.20694	1.8	21.4
10	Value (Attitude) Death	태도	1.19761	1.8	23.2
11	Ethics (Moral) Perception	도덕관	1.18480	1.7	24.9
12	Research Tool	도구개발	1.06964	1.6	26.5
13	Student Teaching	교수법	1.04073	1.5	28.0
14	Vital Sign	활력징후	1.02992	1.5	29.5
15	Communication	의사소통	1.02295	1.5	31.0
16	Behavior Nursing Process	간호행위	1.01969	1.5	32.5
17	Competency Autonomy	자신감	1.01969	1.5	34.0
18	Continuing Education Mental Status	계속교육	1.01782	1.5	35.5
19	Growth & Development	성장발달	1.01569	1.5	37.0
20	Leadership, Safety	지도력	1.01569	1.5	38.5
21	Comfort	안위	1.01172	1.5	40.0
22	Curriculum Stress (Crisis)	교과과정	1.01172	1.5	41.5
23	Achievement Patient Teaching	성취감	1.01172	1.5	43.0
24	Exam. Score	시험점수	1.01172	1.5	44.5
25	Conflict	갈등	1.00778	1.5	46.0
26	Body Image	신체상	1.00778	1.5	47.5
27	Job Satisfaction	직무만족	1.00778	1.5	49.0
28	Need	욕구	1.00778	1.5	50.5
29	Patient Role	환자역할	1.00778	1.5	53.0
30	Quality Assurance Rehabilitation	질적간호	1.00778	1.5	54.5
31	Maternity Care	보성간호	1.00778	1.5	56.0
32	Uncertainty	불확실	1.00388	1.5	57.5
33	Geriatric Nursing	노인간호	1.00388	1.5	59.0
34	Nurse Image	간호원상	1.00388	1.5	60.5
35	Nutrition	영양	1.00388	1.5	63.0
36	Pregnancy	임신	1.00388	1.5	64.5
37	Infant Care	영아간호	1.00388	1.5	66.0
38	Patient Problem	환자문제	1.00388	1.5	67.5
39	Healing, Infection	치유	1.00388	1.5	69.0
40	Therapeutic Touch	치료체험축	1.00388	1.5	70.5
41	Climacteric Symptom	풍트증	1.00388	1.5	73.0
42	Environment Tolerance	환경	1.00388	1.5	74.5
43	Patient Satisfaction	환자만족	1.00388	1.5	76.0
44	Child Abuse	자녀교육	1.00388	1.5	77.5
45	Family	가족	1.00388	1.5	79.0

와의 관계를  $\chi^2$ -test로 검증한 결과 양학술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설계의 선택은 연구자의 전공영역과 관계없이 연구의 주제(개념)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사려된다.

### 3. 연구논문의 주요 개념의 영역분류

총 458편 논문에 이용된 개념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Eigen value 1.0 이상의 요인인 45개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누적율은 79.0%이었다. (표 21참조)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영역은 health belief, pesonality profil, self concept 와 같은 인지요인, Empathy, Trust 의 심리요인, Anxiety, Tension, Pain 와 같은 감각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atient satisfaction, child abuse 및 Family 와 같은 요인들도 간호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앞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영역이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인의 수가 많은 것은 간호연구 논문에서 변수로 이용하고 있는 개념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간호학이 응용과학으로서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다양한 개념을 이용하여 연구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사려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 간호학회지”와 “Nursing Research”를 중심으로 과학적 연구방법이 갖추어야 할 제 내용들을 분석하여 최근간호연구 논문의 과학적 연구방법의 경향을 알아봄으로서 앞으로의 간호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자료로서는 13년간 “대한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99편과 5년간 “N.R.”에 게재된 논문 259편 등, 총 458편 전수를 대상으로 Y태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학생 13명이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로 되는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check list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책임연구자의 학위는 “대한 간호학회지”인 경우 석사학위소지자가 가장 많으나 비하여 “N.R.”인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자의 직책에 있어서는 양 간호학 모두 교수가 가장 많았고 전공영역 역시 양 간호학 모두에서 성인간호가 가장 많았다.

2.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서 요구되는 문제진술은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N.R.”에 비하여 대부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시한 경우에도 의문형보다는 서술형이 많았다.

N.R.의 경우 문제진술의 유무는 책임연구자의 직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의 유무와 유형에 있어서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N.R.”에 비하여 가설이 설정된 논문이 적었으며 유형에 있어서는 양간호학에 큰차이가 없었다. 가설과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N.R.”의 경우 가설의 유무와 자료수집 도구(객관적 척도법, 설문지법)의 사용여부와 관계가 있었으며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가설의 유무와 자료수집 도구의 수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의 유무와 분석종류와의 관계에서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chi^2$ -test, t-test ANOVA가, “N.R.”의 경우는 t-test 와 ANOVA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가설의 유무와 통계분석수와는 양간호학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의 유무와 제언유무와는 “대한간호학회지”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의 수와 자료수집도구의 수와는 “N.R.”에서만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4. 연구설계에 있어서는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조사연구가 과반수 이상인 반면 “N.R.”에서는 사후연구와 조사연구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설계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내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설계와 자료수집도구수와는 양간호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었으며 통계분석수와는 N.R.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제언의 유무와는 양간호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와 가설의 유무와는 양간호학 모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5. 논문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Advanced statistics나 Non-Parametric Statistics는 대부분 “N.R.”에서만 찾아볼수 있었고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선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6. 제언의 유무에 있어서도 “대한간호학회지”的 경우 “N.R.”에 비해 제언이 제시된 논문이 매우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논문은 과학적 연구방법에 필수적인 문제진출과 가설 및 제언을 제시하는 과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앞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논문의 차로치라는 고급 통계와 Non-Parametric statistics 등 복잡한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운희, 이숙자,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1980, 5, 6호.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학영사, 1981년
- 김수지, 간호학이론, 간협신보, 1981, 11월 13일자 8면
- 김수지, 간호학이론, 간협신보, 1980, 11월 20일자 8면
- 이귀왕, “창간사”, 간호학회지 창간호, 1970년 12월.
- 전산초, “전문직업과 간호연구”, 대한간호, 제 9권 3호, 1970.
- 조경자, “한국의 간호연구 경향에 대한 통계적 고찰” 경희간호연구지, 창간호, 1977.
- 조경자, “한미간의 간호연구 경향에 관한 비교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1978.
- Abdellah, F. Levine, E. *Better patient Care through Nursing Research* N.Y. The Macmillen Co. 2nd Ed., 1971.
- Fox, D.J. *Fandamentals of research in Nursing*, 3rd Ed., N.Y. Appleton-Century-Crafts, 1976.

Gortner, S.R., “Scientific Accountability in Nursing” *N.O.*, vol. 22, 1974.

Henderson V., “We've 'come a long way,' but what of the direction?” *Nursing Research*, (May/June) 1977, p. 163.

Highriter, M.E. “The Status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May/June) 1977, Vol. 26, No. 3.

Kerlinger, F.N.,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73.

Notter, L.E., “Nursing Research,” *N.R.*, vol. 20, No. 1, 1971.

Polit, D.F., Hungler, B.P., *Nursing Research, Principles & Methods*, New York J.B. Lippincott Co., 1978.

See, E.M. “The ANA and Research in Nursing,” *Nursing Reseach* 1977 (May/June) Vol. 26, No. 3

Siegel, S., *Nonparametric Statistics*, N.Y.: McGraw-Mill Book Co., 1956.

Simmons, L.W. & Henderson, V. *Nursing Research, Survey & Assessment* New York: Appleton-Century-Crafts, 1964.

Stevens, B.J., *Nursing Theory*, Little Brown & Co., 1979.

“The Report of ‘25th Anniversary of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1977, May/June Vol. 26, No. 3.